

‘루키’ 김기훈 2이닝 1실점... “제구 조금 좋아지는 느낌”



오키나와 TIGERS 캠프를 가다

한승혁 히로시마 강타선에 4실점
0 대 8... 연습경기 4연패
3루수 출전 이창진 호수비 선보여

KIA 타이거즈가 히로시마 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연습경기 4연패에 빠졌다.

KIA가 18일 일본 오키나와 시영구장에서 열린 히로시마 도요카프와의 연습경기에서 0-8로 졌다. 지난 11일 야쿠르트 스왈로스전 3-5 역전패를 시작으로 연습경기 4연패가 기록됐다.

1회부터 선발 한승혁이 히로시마 강타선에 못매를 맞았다.

한승혁은 첫타자 타나카와의 승부에서 유격수 김선빈의 좋은 수비로 땅볼을 잡아냈지만 키쿠치와 초노에게 연속 안타를 허용했다. 그리고 4번타자 스즈키의 타구가 우측 담장 넘어가면서 3-0이 됐다.

한승혁은 홈런 이후 2루수 땅볼로 투아웃은 만들었지만 낮아웃으로 도바야시를 내보냈고, 연속 3안타로 4번째 실점을 했다. 한승혁은 첫 타자로 만났던 타나카를 삼진으로 돌려세운 뒤에야 길었던 1회를 끝낼 수 있었다.

직구 최고 구속 148km를 기록한 한승혁의 성적은 1이닝 6피안타(1피홈런) 2탈삼진 4실점(3자책점).

한승혁에 이어 ‘루키’ 김기훈이 이번 캠프 두 번째 등판에 나섰다.

앞선 야쿠르트전에서 3볼넷을 허용했던 김기훈은 이번 등판에서도 첫 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냈다. 유격수 앞으로 향하는 땅볼로 병살타를 유도했지만 다시 볼넷으로 주자를 내보내기도 했다.

3회에도 마운드에 오른 김기훈은 유격수 땅볼로 첫 아웃카운트를 잡은 뒤 좌중월 솔로포를 허용했다. 하지만 이날 삼진도 수확하면서 2이닝 2피안타(1피홈런) 2볼넷 1탈삼진 1실점기록했다.

김기훈은 “두 번째 이닝에는 안타를 맞기는 했지만 자신 있게 공을 던진 게 수확이다”며 “제구를 더 신경 써야 하는데 조금씩 좋아지는 느낌이다.



18일 일본 오키나와 시영구장에서 열린 히로시마 도요카프와의 연습경기에서 투수 한승혁이 역투하고 있다.

/오키나와-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다음 등판에서는 더 좋은 모습 보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KIA는 이후 하준영-박지훈-고영창-이준영을 투입했지만 불발은 히로시마 타선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3개의 피홈런 포함 장단 14안타를 내준 KIA는 8실점을 했다.

타석에서는 산발 5안타로 득점을 만드는 데 실패했다.

1회 선두타자 김선빈이 중전 안타로 출루하면서 히로시마와의 캠프 약연을 끊는 것 같았지만 해클 베이커가 삼진으로 물러났다. 안치홍의 중전안타가 이어진 뒤에는 최형우의 병살타가 나오면서 기선 제압에 실패했다.

9회 마지막 공격에서는 1사에서 나온 한준수의 좌전 안타와 오정환의 볼넷으로 득점기회를 잡았지만, 신범수의 타구가 투수 앞으로 향하면서 1-6

-3의 병살로 경기가 마무리됐다.

한편 야수진의 백업 경쟁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창진은 내-외야를 오가며 좋은 점수를 받았다. 3루수로 출전한 이창진은 중견수로 자리를 옮겨 아웃카운트를 올렸다.

이창진은 “하루하루 열심히 하고 있다. 3루수 많이 하는데 외야는 처음 나갔다. 오랜만에 하니 타구 판단이 어려웠다. 연습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 (트레이드 전에는) 외야로 주로 나갔다가 KIA에서는 내야만 소화했었다. (기회를 잡기 위해서) 어느 포지션이든 다 해야 하나 연습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며 “다부진 모습, 끈기 있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KIA는 19일 한신 타이거즈를 상대로 연습경기 연패 탈출을 노린다.

/wool@kwangju.co.kr

숨 가쁜 수비 훈련...히로시마 팬들 아낌없는 격려

KIA 타이거즈 선수들이 히로시마 팬들의 박수 갈채를 받았다.

KIA는 18일 오키나와 시영구장에서 히로시마 도요카프와 연습경기를 치렀다. 이날 경기장에는 센트럴리그 3연패에 빛나는 히로시마를 보기 위해 많은 일본 야구팬들이 찾아왔다.

경기를 앞두고 양 팀은 필딩 훈련을 진행했다. 필딩 훈련은 야수진이 각자의 포지션에서 실전처럼 공을 받고 송구를 하는 수비 훈련이다.

KIA의 필딩 훈련은 조금 독특하다. 평고를치고 공을 받고 던지는 모습은 똑같다. 하지만 KIA의 필딩 훈련 시간에는 야수들뿐만 아니라 투수들

도 ‘관람자’로 훈련에 함께 한다.

훈련이 시작되자 식사를 하던 선수들은 물론 코칭스태프까지 모두 3루 베이스 방향으로 길게 늘어섰다.

그냥 훈련을 지켜보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라운드 안에서 훈련을 하는 선수들을 향해 화

이팅도 외치고, 실수가 나오면 핀잔도 주면서 경기장을 들쭉이게 하는 게 이들의 역할이다. 안에서 훈련을 하는 선수들도 쉴 새 없이 화이팅을 외치면서 분주하게 뛰어다녔다.

김민호 야수 총괄 코치의 지휘 아래 KIA는 일심동체가 되어서 합성을 지르고 격려를 하면서 그라운드 분위기를 압도했다.

시끌벅적했던 필딩 훈련이 끝나고 KIA 선수들이 덕아웃으로 향하자 관중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히로시마팬은 환호성까지 지르면서 인상적이었던 KIA 훈련에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김민호 총괄코치와 선수들도 모자를 벗고 히로시마팬들의 박수에 화답했다.

이어 진행된 히로시마의 필딩 훈련 시간에는 관중석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팬들의 뜨거운 관심 탓인지, 상대 코치의 평고가 잇달아 빛나면서 그라운드와 관중석은 몇 차례 웃음바다가 됐다.

/wool@kwangju.co.kr

오승환 “몸 상태 최고로 좋다”

실전 등판 전 라이브 피칭...투구수 늘려가며 컨디션 조절

오승환(콜로라도 로키스)이 실전 마지막 단계인 라이브 피칭에 돌입했다.

오승환은 18일 미국 애리조나주 스크츠데일 솔트 리버 필드 옛 토링 스틱에서 타자를 세워놓고 공 35개를 던졌다. 라이브 피칭 전에 볼펜에 올라 투구 30개를 했다.

2월 중순에 이미 실전 등판 바로 직전까지 몸 상태를 끌어올렸다.

콜로라도 투-포수 소집일이었던 14일 스프링캠프 시작 후 첫 볼펜피칭을 한 오승환은 이를 뒤인 16일 다시 한번 볼펜피칭을 했다.

그는 콜로라도 캠프를 시작하기 전 애리조나주 투산의 kt wiz 캠프에서 볼펜피칭을 4차례 했다.

오승환은 “지금은 공을 던질 몸이 거의 완성돼야 하는 시점”이라며 “몸을 만드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주위에서는 “메이저리그에 처음 진출한 2016년 이후 가장 좋은 몸 상태”라고 설명했다.

오승환은 콜로라도 구단에서 “충분히 쉬어도 된다”고 조언할 정도로 오승환은 빠르게 ‘실전에 나설 상태’에 다가가고 있다.

콜로라도는 24일부터 메이저리그 시범경기를 치른다. 아직 오승환의 등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오승환은 언제나 등판할 준비를 마치고자 한다.

실제로 벌써 7차례의 볼펜피칭과 한 번의 라이브 피칭을 소화했고, 빠르면 20일 두 번째 라이브 피칭을 한다.

오승환은 지난해 2월 텍사스 레인저스와 입단 합의했지만, 계약이 불발됐고,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계약했다. 계약이 늦어지면서 스프링캠프에 늦게 합류했다. 그러나 빠르게 토론토 볼펜 승리로 자리 잡았고, 콜로라도로 이적한 뒤에도 호투를 이어갔다.

지난해 오승환의 성적은 73경기 6승 3패 3세이브 21홀드 평균자책점 2.63이다.

/연합뉴스



‘25억’ 이대호, 올해도 연봉킹

KBO 리그 선수 연봉 공개...KIA 평균 연봉 3위·양현종 투수 1위

롯데 자이언츠의 이대호(사진)가 2019시즌에도 연봉킹 자리를 지켰다. KIA 타이거즈의 김선빈은 삼성 김성윤의 입대료 최단선 선수로 다시 이름을 올렸다.

KBO가 2019년 KBO 리그 소속선수 등록 현황 및 연봉 자료를 집계하여 18일 발표했다.

올 시즌 KBO 리그에 등록된 선수단은 10개 구단의 감독 10명과 코치 248명, 선수 586명 등 총 844명이다. 올 시즌 KBO 리그 평균연봉은 1억5065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0.3%가 증가했다. KBO 리그는 지난해 최초로 1억5000만원 선을 돌파했다.

구단 평균 연봉은 롯데가 1억9583만원으로 가장 높고, NC의 평균 연봉은 지난해 1억678만원에서 2019년 1억6576만원으로 5898만원이 올라 올 시즌 최고 인상액과 최고 인상률(55.2%)을 기록했다.

KIA는 지난해 2억120만원이었던 평균 연봉이 1억7820만원으로 하락했지만, 전체 3위를 기록했다. 롯데 이대호는 25억으로 3년 연속 개인 최고 연봉

선수 타이틀을 지켰다. KIA 양현종은 23억의 연봉을 받으면서 투수 부문 연봉 1위 자리를 유지했다.

구단별 최고 연봉자는 KIA 양현종을 비롯해 NC 양의지(20억원), SK 김광현(15억원), 키움 박병호(15억원), LG 김현수(13억원), 삼성 강민호(12억5000만원), KT 황재균(12억원), 한화 김태균(10억원), 두산 김재환(7억3000만원)이다.

FA 계약으로 두산에서 NC로 팀을 옮긴 양의지는 6억에서 20억으로 연봉이 수직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 연봉 인상액(8억5000만원·2018년 롯데 손아섭) 기록을 갈아치웠다.

최고령 선수는 지난해 한화 박정진에서 올해 삼성 박한이로 바뀌었다. 만 40세 3일의 나이로 등극한 박한이는 2015년 진갑용(삼성) 이후 4년만에 타자로 최고령 선수가 됐다. 반면 KT의 손동현은 만 18세 8일로 최연소 선수가 됐다. 박한이와는 무려 22년의 나이 차이가 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